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三、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 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末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四、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五、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六、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더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七、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이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贊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보여서 이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영의(マ、)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나타내려 하였다.

가、○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干支^{先行}——干支^{後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 干支와 後續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게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成宗實錄

成宗九年(成化十四年).....	一
成宗十年(成化十五年).....	三
成宗十一年(成化十六年).....	一〇
成宗十二年(成化十七年).....	一〇
成宗十三年(成化十八年).....	一五
成宗十四年(成化十九年).....	二五
成宗十五年(成化二十年).....	三五
成宗十六年(成化二十一年).....	四三
成宗十七年(成化二十二年).....	四七

成宗實錄 卷九十四

九年七月

〔參〕○壬戌〔上略〕〔以金舜臣爲嘉善行義州牧使吳湘通政行江界府使金致亨
通政行龜城府使

〔參〕乙丑○〔上略〕〔領議政鄭昌孫等又啓曰〕〔中略〕江界府使李惇仁義州牧使韓千
孫渭原郡守金嵩今雖已遙然此輩皆能於武事姑留防秋待明春罷戍
遙代何如並從之

〔參〕○〔上略〕〔以韓千孫爲通政行義州牧使李惇仁通政行江界〔府力〕討使金繼宗通
政行龜城府使

成宗實錄 卷九十五

九年八月

〔參〕壬辰○禮曹據司譯院牒啓大典內昌城理山滿浦女眞學各五故其通事兼差軍官使之教訓若渭原碧潼義州等官則近者始遣通事而大典無學生之數請依昌城等官例亦各定生徒五人從之

甲午○下書永安北道節度使鄭蘭宗曰得卿所啓知各處被擄人口逃來之因但此處置實難一切還給則似碍於義若皆解送則邊釁立生要在權時處中耳往者觀察使李德良拜辭時以此稟之許以隨宜處置德良不與卿言歟抑卿聞之不信而有是啓歟今走回人等既云唐人則還給無辭然其主尋踵而來明知入境則不可匿之況柳能波只王好時乃羅之介等雖居漢城自稱女眞不可的知

爲唐人何必強取解送以構邊釁其本主還推人口等卿宜似若初
不聞于朝者權辭還給其不追尋人口可上送其上來者勿令與還
歸者相見以祕去留之迹

丙申○御經筵講訖領事韓明澮啓曰平安道防禦國家重事世宗
朝築長城起自義州抵永安道又沿江置州郡此國家萬世之利也
然歲月久遠漸至崩頽以致邊備疎虞今太監（汪力）注直掌天下之兵威
震海內天子倚以爲重者而與兵部侍郎馬文勝等（升力）各領兵來鎮遼
陽此中國大舉也我國其無備禦之策乎今年平安道農事未稔軍
官不可多遣宜量數抄送以嚴隄備上曰予意以爲無害於我國（下略）

〔參〕辛丑○下諭永安北道節度使鄭蘭宗曰聞塞上風寒甚於他方候望體
探軍士常祁寒雨雪必有堅冰在鬚積雪沒脛之苦言念至此良用惻然
姑備襦衣三百領送之卿將予意開諭各賜一領

○壬寅遣知中樞府事韓致亨奉表如京師賀聖節上率百官拜表如儀先是唐人梁多貴等六人爲毛憐衛野人所擄至是多貴等四人來會寧鎮張召已來投鏡城鎮趙松兒來投富寧鎮金東京等四人爲建州衛野人所擄東京來投理山鎮韓平山來投昌洲鎮婦女胥青等二人來投碧潼鎮就差聖節使通事張有華押解遼東

庚戌○御夕講洪貴達啓曰千秋使先來通事賈來聞見事目云行至沙嶺驛總兵官歐信到是驛待太監汪直之行語曰嚮者征達子斬獲千餘級又欲於九月入征建州衛殄殲無遺汪太監欲與爾國夾攻將如京奏請若殄殲無遺則於爾國亦有利矣但未知蒙准與否若爾則上國必請兵請先抄兵何如上曰若先抄兵則慮或騷擾貴達曰臨時選兵則事必急遽請與大臣及諸武臣廣議何如

壬子○兀良哈萬戶金波乙多尙來獻土宜

○命召曾經政丞議政府兵曹及曾經平安道觀察使節度使者傳
曰聞上國將請兵於我征建州衛抄兵之數及運糧斥堠便否僉議
以啓鄭昌孫議平安道今年失農且近來數有邊警防禦尤緊勿抄
本道兵擇永安及下三道驍勇者毋過三四千人糧餉依丁亥年例
用本道所儲爲便前此再征建州道路迺直已悉不必預令探候先
自騷擾尹士昕金國光盧思慎尹弼商洪應議抄軍毋過五六千擇
本道黃海京畿及忠清上道永安南道精兵爲便糧餉依丁亥年例
用本道所儲令邊邑詳知彼境道路者預先斥（候力）侯爲便許琮魚有沼
議若入攻則當分二路而入一路之兵須不下五六千本道及黃海
道軍士壯勇者必不滿萬預擇京中京畿忠清永安南道有武才者
二千人臨時發遣糧餉依丁亥年例以安州寧邊等邑所在穀支用
且先知道路迺直兵家要道密諭本道節度使須及草木未枯使人

探侯(候力)去丁亥年分二路入攻一自滿浦一自高山里其後唐人逃來

者皆云彼人疑我再舉多鑿坎設險若從此路不可入矣今宜一從
理山一從碧團而入擣其不虞李克培議丁亥年中朝征建州衛下
勅徵兵世祖命將入征彼人不虞我兵之至壯者皆出禦遼東我兵
乘虛入攻僅獲婦女弱口頭畜而還其不敗幸也彼人懲於前日若
聞中朝入征必先備我兵入攻之路據險伏兵則雖良將勁卒必不
得志反取笑於中原且連結諸種侵軼不已邊民受弊何可勝言丁
亥以後前怨未釋今又用兵益生憤怨況平安一道年年飢饉軍民
俱困時屈舉羸又恐不可世宗朝正統皇帝親征達子王武奉勅求
兵世宗至誠事大宜若奉命而以我國四面受敵防戍處多兵力不
敷爲辭今我國南方亦有辭其於奏對不爲無辭朴星孫議若入攻
則可於草枯前遣人探侯(候力)道路本道殘敝莫甚運糧爲難安州寧邊

所儲亦足支用多抄本道軍分二路入攻爲便李克增魚世恭鄭文
烱金堅壽議平安道頻年失農兵力不敷分道入攻勢甚不可不得
已用兵則當不過六七千若然則安平（平安力）黃海京畿永安南道之兵足
矣不須并抄下三道兵使一國騷動況慶尙全羅屢有倭變乎本道
蓄積不爲不足不須移轉若欲入攻則密諭本道節度使須於草枯
前探候爲便（候力）然觀事目此是歐信之言而已皇帝准不准猶未的知
不可先自騷動待遼東飛報後處置亦未晚也若日期太迫勢未及
調兵則回奏有辭李克均議平安一道去年失農今年尤甚民生甚
艱況興兵乎在世宗朝中朝請兵不從只獻馬匹今雖請兵對之無
難雖不從命可也若以爲世祖旣從請今不可違則平安軍士一萬
四千八百一道入征軍士不過四千則他道軍士不須并徵丁亥年
入征時下三道軍士三千分（成力）戊江邊諸邑然道遠人困馬疲不可用

矣自理山直抵野人居處道路平衍無礙用大軍甚便只抄本道兵四千與京軍官由理山入征以塞命爲便平壤安州寧邊軍需不爲不足不必運糧以致騷擾且用軍當先察山川形勢道路迂直須及草木未枯慎密探候勿洩事機河叔溥議自世宗世祖朝累攻建州毛憐二衛去乙未年建州野人犯境奏請入攻而中朝不許今違背勅命似爲不可須預先規畫待勅至卽發兵用本道及黃海道之兵足矣宜令本道節度使草木未枯前自滿浦至蒲州自理山至吾未部祕密體探本道軍糧有餘勿令他道運糧金順命議中朝之請雖不可違在我之計亦可不輕動使助征而捷利不歸我況勝敗難知取怨必多彼不得逞憤於中原則將侵犯於我臣恐平安殘敝之兵不能當之若承勅諭但以平安之兵作爲聲援不可輕動本道軍資不敷須預爲之備黃海道田稅限五六年納於安岳長連等邑次次

運用爲便不可先事斥侯（候力）以起彼人疑懼之端李吉甫朴良信議平安道連年失農彫敝太甚難於用兵況我國旣與建州衛尼麻車兀狄哈爲讎今建州衛方與海西達子連結作賊於上國今我攻建州衛則海西達子必助建州衛作賊於我國矣若如此則又生一敵也後日之害豈可勝言世宗朝中朝請兵於我辭以四面受敵軍士不敷今全羅道有倭變以此聲息先咨遼東若降勅則以倭變爲辭何難若謂世祖旣應於前今不可違則草枯前須遣人探候道路抄慶尙全羅上道忠清道永安南道平安道精兵一萬過安州寧邊等邑散料入征作爲聲援塞命而已毋窮追取怨

〔參〕甲寅○命召曾經平安道職事諸宰議事許琮魚有沼金堅壽李克均河叔溥朴星孫朴良信議用軍道路則理山二處滿浦碧潼碧團各一處也其險易遠近結陣形便及彼人所居形勢不可不探候擇軍官及萬戶解

文有智者率壯勇士兵五六人分往諸路有能探候者或加資或給綿布二十四賞之且軍士過涉船不可臨時猝辦江邊諸鎮口子船艘令節度使點檢以啓爲便命遣吏曹佐郎曹淑沂于平安道將上項議囑節度使諭平安道節度使成貴達曰聞塞上風寒甚於他方斥候軍士當祈寒雨雪其苦無比良用惻然姑備襦衣二百五十領付曹淑沂以送卿其受之分給軍士兼諭予意

〔參〕

乙卯○御經筵講訖〔中略〕上謂知事李克培曰昨日令示卿體探議卿其見

之乎若中國徵兵則不可不從若往征則不可不體探故議之於卿意何如今軍民凋殘予欲不從然於義不可奈何克培曰臣見其議領事盧思慎曰中國之於我國不以外國待之中國之令不可不從昔在丁亥之歲方征討李施愛北方擾亂而中國徵兵世祖重違帝命分遣北征之師以赴於此之時猶不敢違命況在今時不可不從克培曰臣嘗欲啓此事觀今事勢則不從可也丁亥西征乘彼人不備故得利焉今則不然彼既作

賊於中國而懲前日之事必重爲之備我軍深入險阻萬一失利則非徒見侮於戎虜必貽後世之笑不可輕舉借曰中國之待我至厚不可違命則君父之命臣子亦當諫止豈可不度事之是非而一從無違乎雖曰世祖已從之然世宗則不從亦度其事勢而已上曰今若不從則中國必怒矣克培曰今中國非如契丹達子之類雖怒豈遽加兵於我如不得已則遣兵待變而進可也上曰若從命則豈可逗留不進乎克培曰見可而進知難而退兵家之常事觀勢而動何有不可上曰更議之可也

乙卯○下書永安道觀察使李德良北道節度使鄭蘭宗曰予聞道內慶興富荒巖等處土地沃饒吾民耕懇（懇力）已久在己丑年間以孤單禁耕而其民反與彼人並耕事覺被罪吾民不得耕而使彼人耕食爲不可故議于朝臣之知本道事者或云可耕或云不可耕其議不一卿等同審便否以啓

成宗實錄 卷九十六

九年九月

○朔己未兵曹參判金順命來啓曰童清禮受假將掃墳于其鄉會寧今聞中國有請兵之舉清禮之兄阿亡哈在建州衛若相通則恐聞洩事機請勿遣從之

壬戌○命曾經政丞及六曹議選西征將帥共薦右贊成魚有沼以中國伐建州衛將請兵故也

○甲子下書于永安北道節度使鄭蘭宗曰今年農事不稔若諸種野人來朝恐驛路難支卿悉此意其未起程者權辭開諭姑勿上送